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 설계

조사 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조사 지역	전국 17개 시도
조사 표본	전국 : 1,000명 서울 : 500명
표본 오차	전국 : 95% 신뢰수준에 ±3.1% point 서울 : 95% 신뢰수준에 ±4.4% point
조사 방법	유/무선 RDD 전화 조사(Dual Frame)
표본 추출	모집단 비례한 성/연령/지역 할당 및 체계적 추출법 (Proportionate Quota & Systematic Sampling)
응답률	18.1%
조사 시기	2014년 2월 21일(金) ~ 22일(土)
조사 기관	미디어리서치

2. 조사 내용

- 국정운영 평가
- 취임 후 1년 동안 가장 잘한 정책 분야
-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 과제
- 한·일 관계개선을 위한 전제 조건
- 박근혜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언급에 대한 공감도
- 향후 남북관계 전망
- 남북관계 우선 과제
-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의견
- 남북통일 필요성
-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 양자대결1 : 새누리당 정몽준 vs. 민주당 박원순
- 양자대결2 : 새누리당 김황식 vs. 민주당 박원순
- 양자대결3 : 새누리당 이해훈 vs. 민주당 박원순
- 3자대결 : 새누리당 후보 vs. 민주당 박원순 vs. 안철수 신당 후보
- 정당 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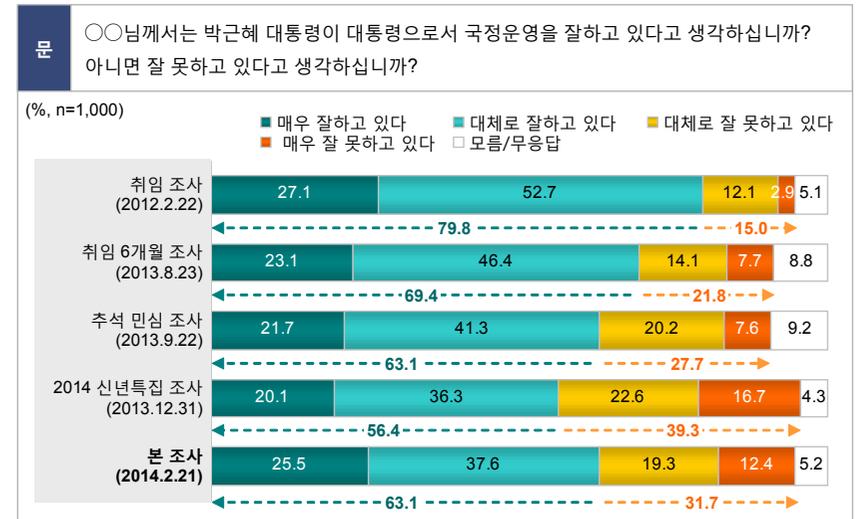
3. 응답자 특성

BASE:전체응답자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00)	100.0
성별	남자	(493)	49.3
	여자	(507)	50.7
연령별	20대	(181)	18.1
	30대	(195)	19.5
	40대	(215)	21.5
	50대	(196)	19.6
	60세 이상	(213)	21.3
지역별	서울	(204)	20.4
	인천 / 경기	(291)	29.1
	대전 / 충북 / 충남	(102)	10.2
	광주 / 전북 / 전남	(103)	10.3
	대구 / 경북	(102)	10.2
	부산 / 울산 / 경남	(157)	15.7
직업별	강원 / 제주	(41)	4.1
	농업 / 임업 / 어업	(21)	2.1
	자영업	(159)	15.9
	블루칼라	(88)	8.8
	화이트칼라	(283)	28.3
	가정주부	(254)	25.4
	학생	(109)	10.9
	무직 / 기타	(82)	8.2
교육수준별	모름 / 무응답	(4)	0.4
	중졸 이하	(148)	14.8
	고졸	(292)	29.2
	대재 이상	(553)	55.3
소득별	모름 / 무응답	(7)	0.7
	100만원 이하	(107)	10.7
	101 ~ 200만원	(139)	13.9
	201 ~ 300만원	(187)	18.7
	301 ~ 400만원	(168)	16.8
	401 ~ 500만원	(117)	11.7
	501 ~ 600만원	(80)	8.0
	601 ~ 700만원	(44)	4.4
	701만원 이상	(64)	6.4
	모름 / 무응답	(94)	9.4

제2장

조사 결과

1. 국정운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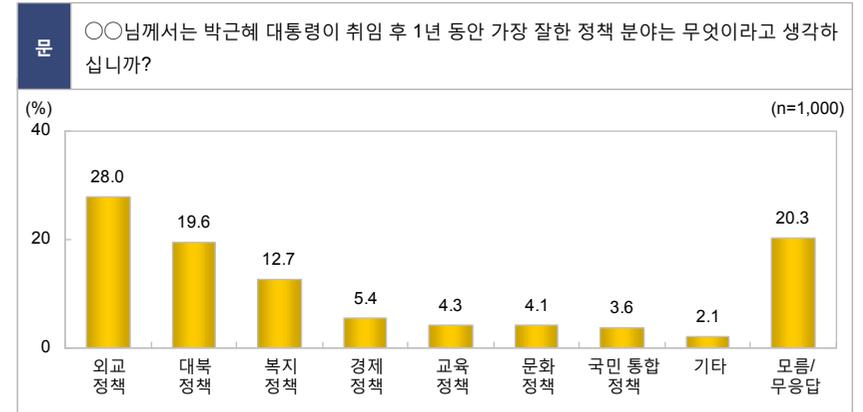


○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했다'(매우+대체로)는 긍정 평가는 63.1%로 나타나, '잘못했다'(대체로+매우)는 부정 평가(31.7%)보다 높았음. 지난 연말(12월 31일) 조사의 긍정평가 비율(56.4%)보다 높게 나타나, 최근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대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철폐 노력, 비정상적 정상화를 위한 공기업 개혁 선언 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됨.

□ 연령별 분석결과 나이가 많을수록(60세이상 91.2% > 50대 83.7% > 40대 61.7% > 30대 40.1% > 20대 34.1%) 긍정평가가 높게 나타남. 지역별로는 충청(73.0%), 박근혜 대통령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TK(75.4%)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높게 나타난 반면, 호남(49.7%)에서는 부정평가가 높았음, 한편, 농/임/어업(81.1%), 가정주부(79.2%)에서는 ‘잘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 화이트칼라(45.4%), 학생(45.5%)은 ‘잘못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잘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다
전체		63.1	31.7	전체	63.1	31.7	
성별	남자	60.0	34.6	연령별	20대	34.1	55.7
	여자	66.0	28.9		30대	40.1	54.8
지역별	서울	59.1	35.5	40대	61.7	34.0	
	인천/경기	62.2	31.3	50대	83.7	12.6	
	대전/충북/충남	73.0	26.1	60세 이상	91.2	5.5	
	광주/전북/전남	40.6	49.7	농업/임업/어업	81.1	18.9	
	대구/경북	75.4	17.8	자영업	67.7	28.3	
	부산/울산/경남	68.7	29.1	블루칼라	57.0	39.3	
학력별	강원/제주	68.3	29.3	직업별	화이트칼라	49.2	45.4
	중졸 이하	88.4	8.0	가정주부	79.2	16.1	
	고졸	72.9	20.8	학생	46.8	45.5	
	대졸 이상	50.7	44.2	무직/기타	77.3	15.1	

2. 취임 후 1년 동안 가장 잘한 정책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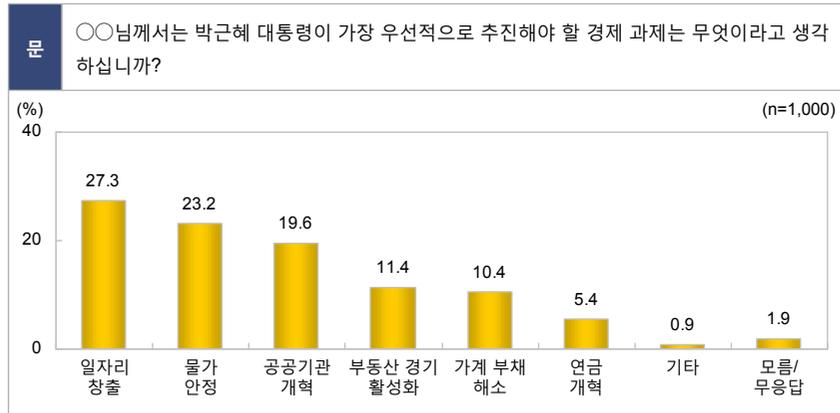


○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잘한 분야로 ‘외교 정책’을 꼽은 의견이 28.0%로 가장 높았으며, ‘대북 정책’(19.6%)이 그 뒤를 이음. 다음으로 ‘복지 정책’(12.7%), ‘경제 정책’(5.4%), ‘교육 정책’(4.3%), ‘문화 정책’(4.1%) 등이 꼽혔음. 전반적으로 외교, 대북 정책 등 외치에 후한 점수를 준 반면, 경제, 복지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외교정책’을 가장 잘한 분야라고 꼽은 의견은 50대(37.2%), 60세이상(38.5%), 서울(33.7%), 충청(35.1%)에서 더욱 높게 나타난 반면, ‘대북정책’은 남성(24.8%), 20대(25.8%), 학생(27.1%)에서, ‘복지정책’은 40대(17.7%), 가정주부(18.3%)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

		외교 정책	대북 정책	복지 정책			외교 정책	대북 정책	복지 정책
전체		28.0	19.6	12.7	전체	28.0	19.6	12.7	
성별	남자	29.7	24.8	8.7	연령별	20대	20.7	25.8	5.7
	여자	26.2	14.6	16.6		30대	20.6	11.2	14.2
지역별	서울	33.7	21.6	6.7	40대	21.8	20.1	17.7	
	인천/경기	26.1	19.8	12.8	50대	37.2	22.1	11.6	
	대전/충북/충남	35.1	16.5	12.8	60세 이상	38.5	19.4	13.3	
	광주/전북/전남	18.3	12.4	16.8	농업/임업/어업	22.8	18.3	14.1	
	대구/경북	32.1	19.4	16.9	자영업	30.6	19.1	10.4	
	부산/울산/경남	27.1	22.4	13.7	직업별	블루칼라	20.4	21.1	16.7
학력별	강원/제주	12.2	24.4	17.1	화이트칼라	29.0	20.7	11.3	
	중졸 이하	28.7	10.8	15.9	가정주부	28.3	12.9	18.3	
	고졸	29.1	22.0	15.6	학생	21.7	27.1	6.8	
	대졸 이상	27.4	20.5	10.4	무직/기타	35.3	27.6	8.9	

3.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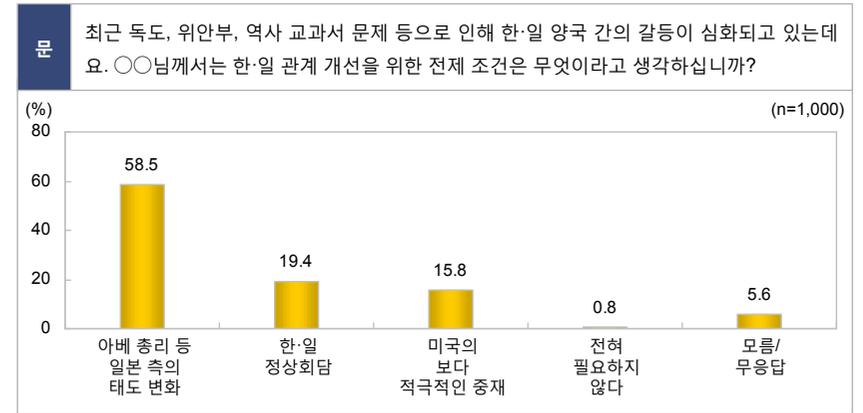


○ 박 대통령이 내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 과제로 ‘일자리 창출’(27.3%), ‘물가안정’(23.2%), ‘공공기관 개혁’(19.6%) 등이 주로 꼽혔음. 다음으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11.4%), ‘가계 부채 해소’(10.4%), ‘연금 개혁’(5.4%) 순으로 나타남. 일자리, 물가안정 등 민생과 직결되는 이슈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직업별로 살펴보면, 농/임/어업(37.9%), 학생(32.5%)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으며, 가정주부(30.1%)는 ‘물가 안정’을, 화이트칼라(24.2%)는 ‘공공기관 개혁’을 꼽고 있음.

		일자리 창출	물가 안정	공공기관 개혁			일자리 창출	물가 안정	공공기관 개혁	
전체		27.3	23.2	19.6	전체		27.3	23.2	19.6	
성별	남자	26.5	14.9	24.4	연령별	20대	34.8	26.4	15.7	
	여자	28.2	31.2	14.9		30대	21.5	25.9	17.6	
지역별	서울	26.2	23.4	19.0		40대	17.7	27.9	22.7	
		인천/경기	25.7	20.3		15.4	50대	29.5	16.6	22.6
		대전/충북/충남	26.4	21.7		17.2	60세 이상	34.1	19.2	18.9
		광주/전북/전남	35.6	20.5		21.3	농업/임업/어업	37.9	24.9	14.1
		대구/경북	31.2	28.4	22.8	자영업	20.4	26.6	23.0	
		부산/울산/경남	25.2	24.2	26.5	블루칼라	25.9	17.8	22.4	
학력별	강원/제주	24.4	35.4	19.5	화이트칼라	24.6	15.9	24.2		
		중졸 이하	43.2	22.7	11.6	가정주부	29.4	30.1	14.8	
		고졸	22.7	28.1	19.6	학생	32.5	30.6	12.5	
		대졸 이상	25.9	20.5	21.8	무직/기타	35.8	16.3	20.4	

4.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전제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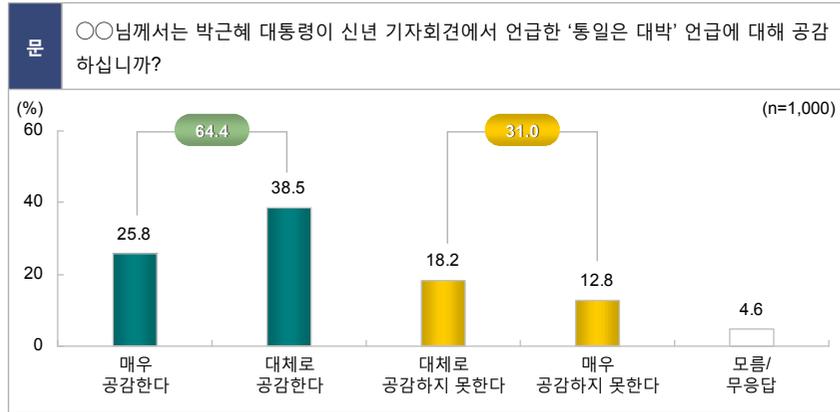


○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전제 조건에 대해서는 ‘아베 총리 등 일본측의 태도 변화’(58.5%)를 꼽은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한·일 정상회담’(19.4%), ‘미국의 보다 적극적인 중재’(15.8%)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정상회담 이전에 일본의 사과 등 태도변화가 우선인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계층에서 ‘아베 총리 등 일본측의 태도 변화’를 꼽은 의견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50대(63.1%), 블루칼라(73.9%)에서 더욱 높게 나타남. ‘한일 정상회담’을 꼽은 의견은 20대(26.6%), 학생(26.3%)에서, ‘미국의 보다 적극적인 중재’를 꼽은 의견은 60세 이상(23.9%)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일본측의 태도 변화	한일 정상회담	미국의 보다 적극적인 중재	전혀 필요하지 않다			일본측의 태도 변화	한일 정상회담	미국의 보다 적극적인 중재	전혀 필요하지 않다	
전체		58.5	19.4	15.8	0.8	전체		58.5	19.4	15.8	0.8	
성별	남자	59.8	16.5	17.5	1.3	연령별	20대	58.5	26.6	9.7	0.6	
	여자	57.3	22.2	14.1	0.3		30대	59.8	19.8	16.3	0.5	
지역별	서울	59.6	21.1	14.4	0.4		40대	57.3	23.3	12.5	1.2	
		인천/경기	59.4	21.7	13.1		1.7	50대	63.1	15.2	15.5	1.4
		대전/충북/충남	59.1	15.8	20.2		0.0	60세 이상	54.4	12.8	23.9	0.2
		광주/전북/전남	61.4	16.7	11.7		1.0	농업/임업/어업	41.7	14.1	27.8	0.0
		대구/경북	61.3	11.1	20.3	1.0	자영업	59.0	20.9	14.5	1.4	
		부산/울산/경남	53.7	21.6	19.2	0.0	블루칼라	73.9	11.6	11.7	1.7	
직업별	강원/제주	50.0	22.0	15.9	0.0	화이트칼라	59.6	18.7	15.3	1.4		
		중졸 이하	51.5	15.1	20.4	0.0	가정주부	56.3	20.6	16.2	0.0	
		고졸	61.0	20.0	15.4	0.8	학생	55.5	26.3	11.5	0.0	
		대졸 이상	59.5	20.1	14.5	1.0	무직/기타	53.9	13.3	26.3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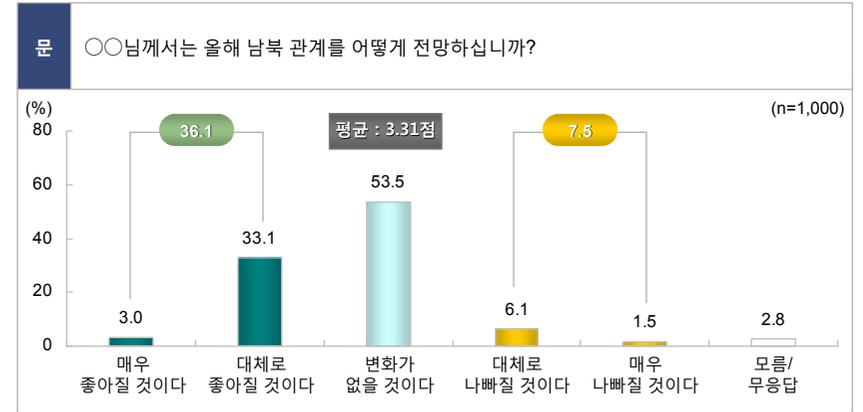
5.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언급에 대한 공감도



-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통일은 대박' 언급에 대해 '공감한다'(매우+대체로)는 의견이 64.4%로 '공감하지 못한다'(매우+대체로)는 의견(31.0%)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음. 최근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가 터지면서, 박 대통령의 통일 발언에 여론의 지지가 실리고 있음.
- '공감한다'는 의견은 연령별로 50대(83.5%), 60세이상(85.0%), 직업별로는 농/임/어업(85.9%), 가정주부(73.9%)에서 더욱 높게 나타난 반면, '공감하지 못한다'는 의견은 20대(41.8%), 30대(52.5%), 화이트칼라(41.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공감한다	공감하지 못한다			공감한다	공감하지 못한다
전체		64.4	31.0	전체	64.4	31.0	
성별	남자	64.3	32.3	연령	20대	49.0	41.8
	여자	64.4	29.8		30대	43.3	52.5
지역	서울	62.7	32.1	40대	58.6	36.3	
	인천/경기	64.2	33.7	50대	83.5	15.9	
	대전/충북/충남	64.8	28.6	60세 이상	85.0	10.9	
	광주/전북/전남	47.8	46.0	직업	농업/임업/어업	85.9	14.1
	대구/경북	76.6	17.1		자영업	65.3	33.6
	부산/울산/경남	67.9	26.5	블루칼라	62.9	33.7	
	강원/제주	70.7	26.8	화이트칼라	54.8	41.0	
학력	중졸 이하	83.1	11.3	가정주부	73.9	20.9	
	고졸	71.6	26.3	학생	56.1	34.3	
	대졸 이상	55.4	38.9	무직/기타	74.1	18.8	

6. 향후 남북관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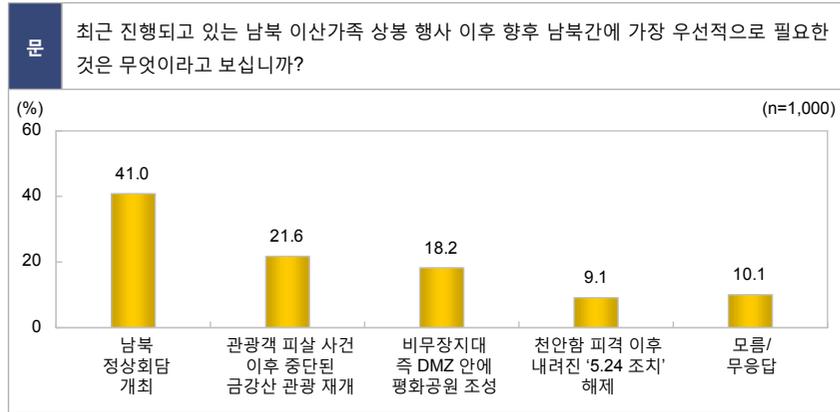


(n=1,000)	좋아질 것이다	변화가 없을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	모름/무응답
취임 조사(2.22)	29.8	51.5	15.5	3.3
취임 6개월 조사(8.23)	46.5	44.4	6.4	2.6
신년특집 조사(12.31)	16.4	55.9	23.1	4.6

-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는 전망이 53.5%로 과반을 차지한 가운데, '나빠질 것이다'(매우+대체로)는 전망(7.5%)보다는 '좋아질 것이다'(대체로+매우)는 전망(36.1%)이 매우 높았음. 이러한 긍정 전망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6개월 시점(46.5%) 보다는 낮지만, 지난 신년특집 조사(16.4%)에 비해 매우 높아진 결과임.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언급하며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등 대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혀 이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높게 형성되어 있음.
- 계층별 분석결과 '좋아질 것이다'는 긍정 전망은 50대(49.2%), 60세이상(53.1%)의 중·장년층, TK(41.9%), PK(40.9%), 블루칼라(43.3%)에서 높게 나타남. 한편 '나빠질 것이다'는 부정 전망은 30대(13.5%), 서울(11.0%), 호남(15.3%)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좋아질 것이다	변화가 없을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	평균 (점)			좋아질 것이다	변화가 없을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	평균 (점)
전체		36.1	53.5	7.5	3.31	전체	36.1	53.5	7.5	3.31	
성별	남자	37.2	51.8	8.8	3.30	연령	20대	24.5	63.5	10.1	3.16
	여자	35.1	55.2	6.3	3.32		30대	19.3	66.3	13.5	3.02
지역	서울	35.2	51.4	11.0	3.26	40대	32.5	59.1	6.5	3.27	
	인천/경기	35.2	55.6	6.7	3.31	50대	49.2	44.2	3.9	3.52	
	대전/충북/충남	36.0	53.8	3.8	3.37	60세 이상	53.1	36.4	4.3	3.56	
	광주/전북/전남	22.4	57.3	15.3	3.04	직업	농업/임업/어업	56.2	34.4	9.4	3.61
	대구/경북	41.9	50.8	7.3	3.34		자영업	35.6	57.2	4.8	3.36
	부산/울산/경남	40.9	55.0	2.8	3.44	블루칼라	43.3	49.2	7.1	3.36	
	강원/제주	50.0	40.2	4.9	3.50	화이트칼라	32.3	55.8	10.6	3.22	
학력	중졸 이하	48.7	36.1	7.4	3.48	가정주부	39.9	49.2	5.3	3.38	
	고졸	37.8	54.1	4.6	3.39	학생	25.4	63.0	8.4	3.21	
	대졸 이상	31.8	57.9	9.2	3.23	무직/기타	42.3	46.3	8.2	3.35	

7. 남북관계 우선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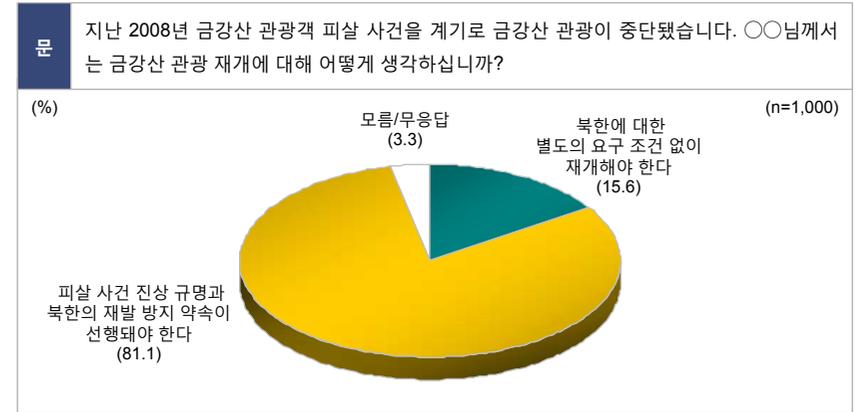


○ 이산가족 상봉 이후 남북간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과제에 대해 '남북 정상회담 개최(41.0%)'를 꼽은 여론이 가장 높게 나타남. 남북통일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남북 정상이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반면, '관광객 피살사건 이후 중단된 금강산 관광 재개(21.6%)', '비무장지대 즉 DMZ 안에 평화공원 조성' 의견은 18.2%로 나타남.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꼽은 의견은 20대(54.6%), PK(44.6%), 학생(55.3%)에서 더욱 높게 나타남. '관광객 피살 사건 이후 중단된 금강산 관광 재개'를 꼽은 의견은 30대(26.8%), 호남(28.3%), 블루칼라(30.1%)에서, '비무장 지대 즉 DMZ 안에 평화공원 조성'은 50대(23.7%), 농/임/어업(41.1%)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

		남북 정상회담 개최	금강산 관광 재개	DMZ 안에 평화공원 조성	'5.24 조치' 해제			남북 정상회담 개최	금강산 관광 재개	DMZ 안에 평화공원 조성	'5.24 조치' 해제
전체		41.0	21.6	18.2	9.1	전체		41.0	21.6	18.2	9.1
성별	남자	37.2	21.0	22.7	9.9	연령별	20대	54.6	16.7	9.8	10.9
	여자	44.7	22.2	13.8	8.4		30대	39.5	26.8	13.8	11.3
지역별	서울	44.0	19.7	14.4	10.8	40대	35.4	25.3	20.7	9.4	
	인천/경기	41.2	25.6	15.3	6.9	50대	35.8	20.8	23.7	9.5	
	대전/충북/충남	41.3	23.9	20.2	6.4	60세 이상	41.2	18.1	21.7	4.9	
	광주/전북/전남	28.8	28.3	21.8	12.4	농업/임업/어업	19.8	14.1	41.1	18.9	
	대구/경북	40.8	18.6	22.3	8.2	자영업	35.2	21.6	22.9	7.4	
	부산/울산/경남	44.6	12.2	21.8	12.9	직업별	블루칼라	35.4	30.1	16.1	11.0
학력별	강원/제주	41.5	24.4	19.5	2.4	화이트칼라	42.8	23.2	16.4	10.2	
	중졸 이하	37.6	16.6	22.3	6.7	가정주부	40.8	21.5	16.0	8.1	
	고졸	40.3	23.0	18.9	7.1	학생	55.3	16.9	10.9	11.4	
	대재 이상	42.7	22.2	16.4	10.9	무직/기타	39.6	15.0	28.6	4.8	

8.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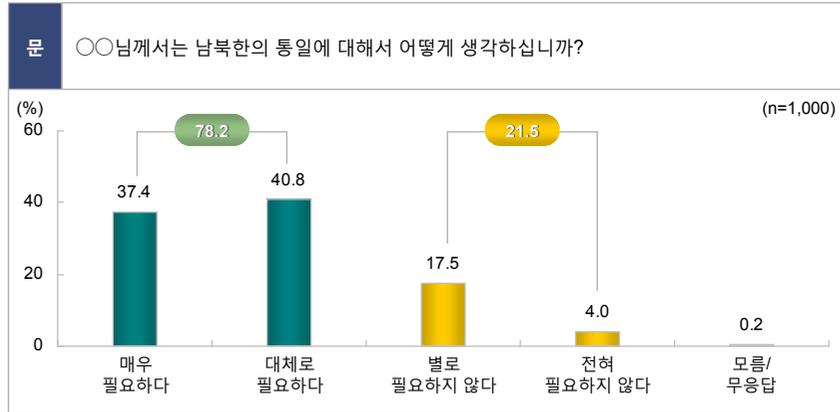


○ 향후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피살 사건 진상 규명과 북한의 재발 방지 약속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81.1%로 '북한에 대한 별도의 요구 조건 없이 재개해야 한다'(15.6%)는 의견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무조건적인 관광 재개보다는 우리 국민의 안전 보장이 중요한 만큼 북한의 진상규명과 사과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형성됨.

■ 대부분의 계층에서 '피살 사건 진상 규명과 북한의 재발 방지 약속이 선행되어야 한다'를 꼽은 의견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20대(90.3%), 30대(85.3%)의 젊은층, TK(87.2%), 학생(90.6%)에서 더욱 높게 나타남. 한편 '북한에 대한 별도의 요구 조건 없이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은 60세이상(22.2%), 블루칼라(20.3%)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북한에 대한 별도의 요구 조건 없이 재개해야 한다	피살 사건 진상 규명과 북한의 재발 방지 약속이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에 대한 별도의 요구 조건 없이 재개해야 한다	피살 사건 진상 규명과 북한의 재발 방지 약속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체		15.6	81.1	전체		15.6	81.1
성별	남자	16.7	79.8	연령별	20대	5.8	90.3
	여자	14.5	82.3		30대	10.4	85.3
지역별	서울	16.2	80.9	40대	18.6	80.0	
	인천/경기	14.2	84.2	50대	19.2	79.4	
	대전/충북/충남	17.4	73.9	60세 이상	22.2	71.9	
	광주/전북/전남	12.8	82.2	농업/임업/어업	24.5	75.5	
	대구/경북	10.1	87.2	자영업	19.8	79.4	
	부산/울산/경남	18.2	78.5	직업별	블루칼라	20.3	79.2
학력별	강원/제주	28.0	69.5	화이트칼라	14.2	84.2	
	중졸 이하	22.3	70.0	가정주부	15.9	78.4	
	고졸	18.0	79.7	학생	4.2	90.6	
	대재 이상	12.7	84.6	무직/기타	19.8	72.9	

9. 남북통일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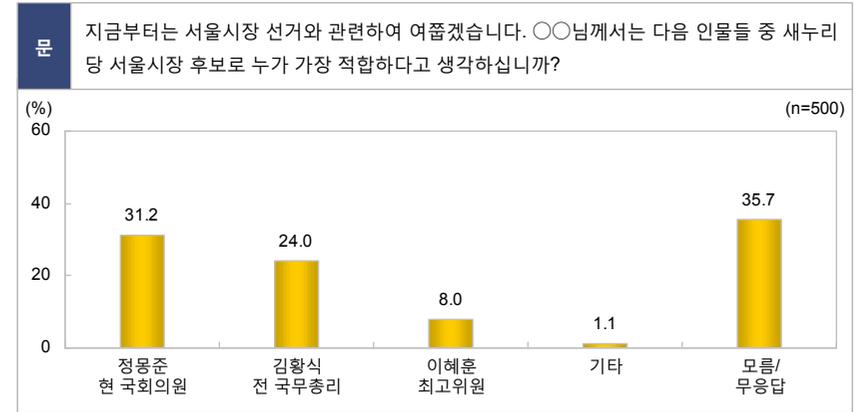


○ 남북한의 통일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매우+대체로)는 의견이 78.2%로 ‘필요하지 않다’(별로+전혀)(21.5%)는 의견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나타남.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 언급과 함께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중국과 통일 논의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등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남북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60세이상 87.0% > 50대 83.5% > 40대 80.0% > 30대 71.1% > 20대 67.3%). 한편 ‘필요하다’는 의견은 충청(84.2%), 중종이하(83.8%)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TK(28.7%), 학생(30.8%)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

전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전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성별	남자	82.0	17.9	연령	20대	67.3	32.7
	여자	74.5	25.1		30대	71.7	28.1
지역	서울	78.2	20.6		40대	80.0	20.0
	인천/경기	77.5	22.5		50대	83.5	16.3
지역	대전/충북/충남	84.2	15.8		60세 이상	87.0	12.3
	광주/전북/전남	75.3	24.7	직업	농업/임업/어업	70.4	29.6
	대구/경북	71.3	28.7		자영업	80.3	19.5
지역	부산/울산/경남	80.7	19.3		블루칼라	71.3	28.7
	강원/제주	84.1	15.9		화이트칼라	80.4	19.6
학력	중졸 이하	83.8	15.5		가정주부	78.5	20.9
	고졸	75.0	24.7		학생	69.2	30.8
지역	대재 이상	78.2	21.7		무직/기타	87.5	11.9

10.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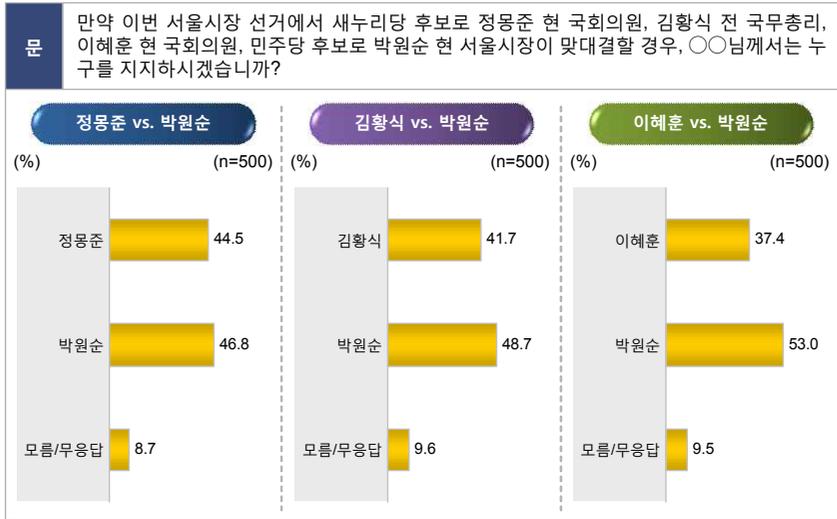


○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정몽준 현 국회의원’(31.2%)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24.0%)가 오차범위 내 경쟁을 하고 있으며, ‘이혜훈 최고위원’은 8.0%의 지지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응답을 유보한 ‘모름/무응답’의 부동층 비율이 35.7%로 높게 나타남.

■ 서울지역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북권(38.7%)은 ‘정몽준 현 국회의원’을 꼽은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동북권(30.0%)은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동남권(11.3%)은 ‘이혜훈 최고위원’을 꼽은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한편 ‘정몽준 현 국회의원’은 60세이상(43.2%), 블루칼라(43.8%)에서 더욱 높았으며,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꼽은 의견은 50대(32.7%), 60세이상(31.5%), 가정주부(29.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전체		정몽준 현 국회의원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이혜훈 최고위원	전체		정몽준 현 국회의원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이혜훈 최고위원	
성별	남자	34.8	28.3	7.4	권역별	서북권	38.7	17.1	5.3	
	여자	27.7	19.8	8.6			동북권	31.4	30.0	8.2
연령	20대	29.3	11.1	5.9		서남권	29.7	22.5	7.2	
	30대	20.1	24.3	8.9		동남권	26.9	22.7	11.3	
지역	40대	30.9	20.2	8.8	직업별	자영업	34.2	28.4	9.9	
	50대	33.0	32.7	11.9			블루칼라	43.8	25.3	12.8
	60세 이상	43.2	31.5	4.5			화이트칼라	29.7	22.3	6.7
학력	중졸 이하	29.5	20.1	6.2		가정주부	25.9	29.3	10.8	
	고졸	36.8	29.6	10.1		학생	27.1	15.2	6.0	
지역	대재 이상	29.2	22.0	7.5		무직/기타	40.2	20.0	3.7	

11~13. 양자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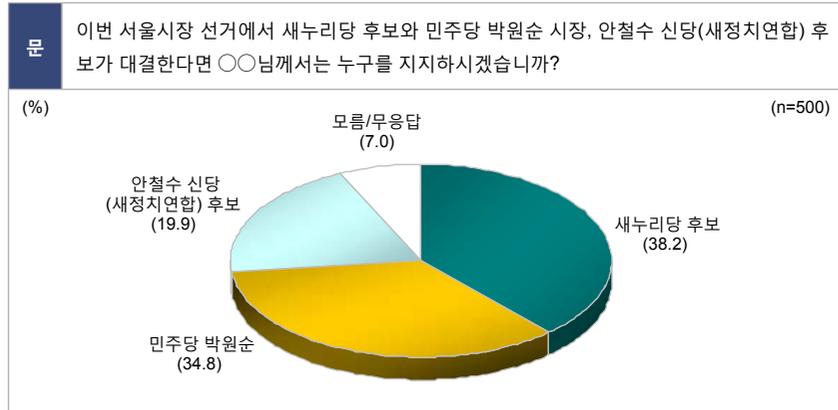
○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서울시장 후보들 간의 가상대결 결과, ‘정몽준’ 현 국회의원(44.5%)과 민주당 ‘박원순’ 현 서울시장 후보(46.8%)간 대결에서는 치열한 접전이 나타나고 있으며, ‘김황식’ 전 국무총리(41.7%)와 박원순 시장(48.7%) 구도 역시 오차범위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새누리당 ‘이해훈’ 최고위원과 박원순 시장 간의 대결에서는 박 시장이 15.6%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남.

새누리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3명의 후보 중에서 ‘정몽준’ 의원, ‘김황식’ 전 총리는 ‘박원순’ 시장과 오차 범위내 접전인 반면, ‘이해훈’ 최고위원의 경우 격차(15.6%p)가 가장 크게 나타남.

■ ‘박원순’ 현 서울시장은 3명의 새누리당 후보에 비해 20~40대의 청·중년층, 서북권,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학생에서 높은 지지도를 보임.
 한편 ‘박원순’ 현 서울시장과의 격차가 가장 적었던 ‘정몽준’ 현 국회의원은 50대, 60세 이상의 장·노년층, 서남권, 가정주부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김황식’ 전 총리의 경우 동남권(47.3%)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해훈 최고위원은 여성(43.5%)층에서 박 시장과의 간격이 좁혀지는 것을 알 수 있음.

		양자대결 1		양자대결 2		양자대결 3	
		정몽준	박원순	김황식	박원순	이해훈	박원순
전체		44.5	46.8	41.7	48.7	37.4	53.0
성별	남자	44.9	44.0	39.0	50.4	31.1	58.1
	여자	44.1	49.5	44.3	47.0	43.5	48.1
연령	20대	28.4	55.7	20.5	61.5	18.7	67.5
	30대	23.4	71.9	24.7	67.2	16.5	71.1
	40대	38.1	50.3	33.9	53.9	31.3	58.5
	50대	56.7	36.2	60.0	34.0	53.0	43.0
	60세 이상	77.0	18.5	70.1	25.8	68.6	24.2
지역권	서북권	31.9	58.9	27.3	59.4	27.3	64.0
	동북권	44.6	47.7	43.6	50.6	36.3	55.3
	서남권	52.2	39.3	44.1	44.4	42.2	46.6
	동남권	43.8	46.2	47.3	43.2	40.6	49.7
직업	자영업	52.3	37.8	47.7	41.4	42.2	51.0
	블루칼라	36.5	59.5	33.5	66.5	25.7	62.9
	화이트칼라	28.5	63.0	27.3	61.9	20.3	70.3
	가정주부	59.3	33.7	63.2	29.4	59.9	32.3
	학생	36.2	54.5	29.6	60.2	25.6	62.6
	무직/기타	67.8	19.6	52.4	35.0	58.7	26.3
학력	중졸 이하	55.6	37.9	39.3	52.3	48.0	39.5
	고졸	56.6	34.5	53.1	36.4	49.6	40.0
	대재 이상	37.5	53.5	37.1	53.4	30.4	60.8

14. 새누리당 후보 vs. 민주당 박원순 vs. 안철수 신당 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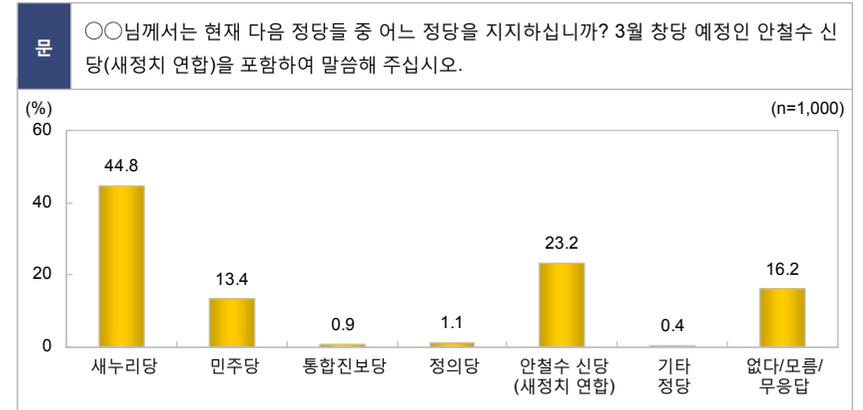


○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세 정당 후보 간의 가상대결 결과, ‘새누리당 후보’(38.2%)를 지지하겠다는 의견과 ‘민주당 박원순’(34.8%)을 지지하겠다는 의견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반면, ‘안철수 신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의견은 19.9%였음. 새누리당 및 민주당 지지층의 일부가 안철수 신당 후보 지지로 돌아서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의 이탈이 높았음. 박원순 시장의 양자대결 구도시 지지율(46.8~53.0%)이 상당 부분(12.0~18.2%)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새누리당 후보’를 뽑은 의견은 서울지역 권역별로 동남권(46.2%), 직업별로는 자영업(46.7%), 가정주부(56.9%)에서 더욱 높게 나타남. 한편 ‘민주당 박원순’을 뽑은 의견은 동북권(39.5%), 블루칼라(56.6%), 화이트칼라(47.8%), ‘안철수 신당 후보’를 뽑은 의견은 서북권(30.6%), 학생(40.5%)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

		새누리당 후보	민주당 박원순	안철수 신당 후보					
전체		38.2	34.8	19.9	전체	38.2	34.8	19.9	
성별	남자	34.9	32.0	24.4	권역별	서북권	25.2	37.0	30.6
	여자	41.5	37.5	15.6		동북권	38.0	39.5	17.9
연령별	20대	17.1	39.9	34.5	서남권	40.5	32.6	17.0	
	30대	18.5	50.7	26.0	동남권	46.2	29.3	18.3	
	40대	26.7	39.6	22.9	자영업	46.7	23.6	23.3	
	50대	60.0	26.8	9.1	블루칼라	25.7	56.6	17.7	
	60세 이상	70.2	16.2	7.1	화이트칼라	24.7	47.8	21.5	
학력별	중졸 이하	53.7	31.5	4.3	가정주부	56.9	25.8	11.4	
	고졸	48.4	24.9	21.4	학생	19.8	32.9	40.5	
	대재 이상	31.4	39.6	21.9	무직/기타	55.1	17.3	10.5	

15. 정당 지지도



○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새누리당’은 44.8%, ‘안철수 신당(새정치 연합)’은 23.2%, ‘민주당’은 13.4%를 나타냄. 반면 ‘정의당’(1.1%), ‘통합진보당’(0.9%)은 1% 내외의 낮은 지지도를 보였으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의 비율은 16.2%로 나타남.

■ ‘새누리당’은 50대(66.4%), 60세이상(75.4%), 충청(53.3%), TK(63.7%), PK(53.4%), 가정주부(57.1%), 중졸이하(66.2%), 국정운영 긍정평가층(68.2%)에서 더욱 높았고, ‘안철수 신당’은 20대(36.1%), 30대(37.3%), 호남(42.5%), 블루칼라(36.7%), 학생(32.8%), 국정운영 부정평가층(47.1%)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새누리당	민주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안철수 신당							
전체		44.8	13.4	0.9	1.1	23.2	전체	44.8	13.4	0.9	1.1	23.2	
성별	남자	42.5	12.5	0.5	1.6	26.7	연령별	20대	23.3	16.9	1.7	0.8	36.1
	여자	47.0	14.3	1.3	0.6	19.7		30대	19.5	21.1	2.2	1.9	37.3
지역별	서울	45.7	12.5	1.2	2.0	22.8	40대	35.8	12.6	0.5	2.7	25.6	
	인천/경기	42.7	13.0	0.3	0.7	23.8	50대	66.4	7.9	0.4	0.0	11.6	
	대전/충북/충남	53.3	13.1	1.5	0.0	20.3	60세 이상	75.4	9.1	0.0	0.0	7.4	
	광주/전북/전남	6.5	22.8	0.0	2.9	42.5	농업/임업/어업	70.8	10.4	0.0	0.0	18.9	
	대구/경북	63.7	6.0	0.7	1.0	14.8	자영업	44.1	10.0	1.2	0.6	22.3	
직업별	부산/울산/경남	53.4	12.4	2.4	0.6	19.3	블루칼라	35.9	16.2	0.0	1.4	36.7	
	강원/제주	50.0	19.5	0.0	0.0	14.6	화이트칼라	33.0	16.9	0.8	2.7	28.9	
	중졸 이하	66.2	10.1	0.5	0.0	11.8	가정주부	57.1	12.5	1.3	0.0	12.7	
학력별	고졸	53.0	12.0	0.6	0.4	18.6	학생	32.2	13.3	1.8	0.8	32.8	
	대재 이상	34.4	15.2	1.2	1.8	28.9	무직/기타	68.3	8.0	0.0	0.4	12.4	